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미래나노텍(095500)

## IT부품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신지혜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 미래나노텍(095500)

국내 IT용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

## 기업정보(2021/07/12 기준)

대표자	김철영
설립일자	2002년 08월 01일
상장일자	2007년 10월 01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LCD 광학필름, 터치 패널, 윈도우 필름, 재귀 반사 필름, 멀티 코팅 필름 등

## 시세정보(2021/07/12 기준)

현재가(원)	4,76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372
발행주식수(주)	28,816,529
52주 최고가(원)	5,370
52주 최저가(원)	2,470
외국인지분율	2.78%
주요주주	김철영 18.34% 외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2,797	-0.3	35	1.3	69	2.5	4.2	2.4	86.1	261	7,302	12.4	0.4
2019	2,930	4.7	29	1.0	17	0.6	0.6	0.5	81.1	36	8,249	109.6	0.5
2020	4,036	37.7	320	7.9	210	5.2	12.7	6.3	74.3	872	8,676	3.6	0.4

### ■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부품소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 중

미래나노텍(주)는 2002년 8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초미세 패턴 설계와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광학 필름, 터치 패널, 재귀반사 필름, 멀티코팅 필름, 윈도우 필름, 전자기기용 노이즈 필터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특히, Imprinting 기술, Optical Design 설계 기술, 정밀 Coating 기술, Polymer Formulation 기술 등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 원동력인 LCD 부품 소재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글로벌 부품소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 ■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시장 호황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글로벌 TV 시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집콕' 수요가 이어지며,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미래나노텍(주)는 이러한 글로벌 TV 시장의 호조와 함께 주요 고객사들의 프리미엄 TV 모델의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수익성 및 성장성이 높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여 향후 더 큰 성장과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 ■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비중 확대에 경쟁력 보유

미래나노텍(주)는 최근 TV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가 점차 대형화되고, 고화질, 고선명을 요구하는 시장의 니즈(Needs)에 맞춰 Sheet to Plate 정밀 합지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광학 부품 4장을 AIOP(All In One Plate)를 통해 1장으로 일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광학부품 두께를 기존 대비 1/2로 축소하는데 기여했으며, TV 세트 조립공정 단순화 및 원가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현재 주요 고객사인 S사의 TV 신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미래나노텍(주)는 AIOP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 광학필름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향후 모델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 기업경쟁력

### 고객만족 극대화 품질경영 추구

- 단계별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중심의 품질경영 실천
- 전문화 및 품질 표준화를 통한 원가혁신 생활화

### 기술 선점과 점유율 확대

-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수 지식재산권 보유
- 제품 다변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중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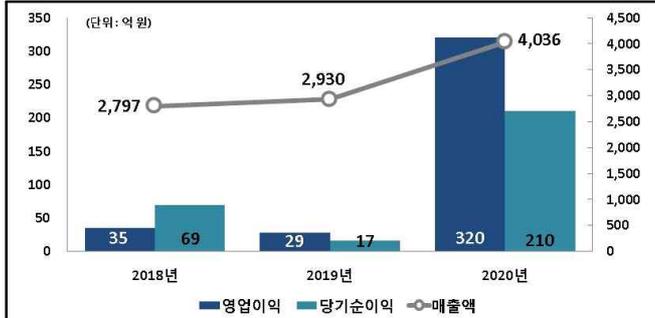
### 핵심기술

- 글로벌 전문 부품 소재 요소 기술 : 광학 설계 기술, Micro Patterning, Roll-to-Roll Imprinting 공정 기술, 고분자 Formulating 기술, 기능성 박막 형성 기술 등

###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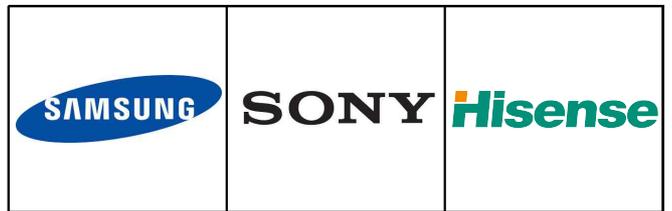
-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 터치 패널
- 멀티 코팅 필름
- 노이즈 필터
- 윈도우 필름
- 재귀 반사 필름

### 매출실적



## 시장현황

### 주요 고객사 - Major Set Maker 확보



## 최근 변동사항

### 프리미엄 TV 시장 호황

-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 2020년 기준 S사 779만 대, L사 204만 7,000대, 매년 큰 폭으로 성장세 시현 중
- 동사 고부가 제품에 집중 → 이익 개선 기대

###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 제품 발굴

- 광학 부품 4장 → 1장 일체화(All In One Plate 개발)
- 광학부품 두께 1/2 감소, 조립공정 단순화에 기여
- 자동차 번호판용 반사 필름 국산화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SDGs
 ENVIRONMENTAL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제품 및 공정 개선 - 원부자재(점/접착제, 분산제, Resin 등) 의 환경이슈 발생 가능성 있음 - 수출 비중 높음, ESG 경영 세계적 이슈	- 환경경영(ISO 14001), 에너지 절약 및 모니터링 강화로 친환경 생산과 소비에 기여 - 일부 원부자재의 안전성, 친환경성 검토 - ESG 동향조사, 도입시기, 조직구성 등 검토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SOCIAL	- 제품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조직문화,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 기술보호, 유출 및 정보보안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보유 - IT 교육지원 캠페인 참여,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단체헌혈, 기부, 미래 꿈나무 장학사업 등 빈곤층 감소를 위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1 NO POVERTY
 GOVERNANCE	- 부패방지 및 내부고발 -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 소통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활동 적극적인 공개 - 연구 자율성 보장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으로 산업 성장과 혁신에 기여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한국기업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 I. 기업현황

##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Technology Innov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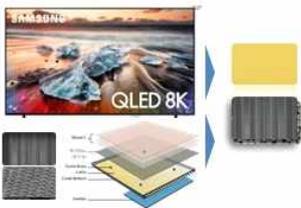
동사는 필름의 광학 설계와 초미세 패턴 구현, 코팅 기술 등을 확보하여, 주력 제품인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외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고객요구에 맞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국내 IT용 디스플레이 소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 ■ 기업 개요

미래나노텍(주)(이하 '동사')는 2002년 8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초미세 패턴 설계와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광학 필름, 터치패널, 재귀반사 필름, 멀티코팅 필름, 윈도우 필름, 전자기기용 노이즈 필터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한국 본사를 거점으로 중화권(중국) 계열회사 포함 22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3월 말 기준 본사에 3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대표이사 김철영(1964년생, 남)은 창업자로서 2002년 8월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인으로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 미세소자공학과(석사)를 졸업하였고, 삼성 SDI(주) 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동업계 전공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 본사 및 계열사의 주요 제품

<b>본사 제품군</b>		
 <p><b>&lt;TV용 광학필름&gt;</b> · 중/대형 인치 및 프리미엄 제품 위주</p>	 <p><b>&lt;터치패널&gt;</b> · Metal Mesh 공정을 활용한 터치솔루션 제공</p>	 <p><b>&lt;멀티코팅필름/연신필름/Privacy&gt;</b> · 다양한 패턴코팅으로 제품 디자인성 향상</p>
<b>계열사 제품군</b>		
 <p><b>&lt;노이즈필터&gt;</b> · 스타일러 등 가전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p>	 <p><b>&lt;원도우필름&gt;</b> · 고가 IR 제품 등 프리미엄 제품 위주 성장</p>	 <p><b>&lt;재귀반사필름&gt;</b> · 필름식 번호판 런칭으로 시장점유율 확대</p>

\*출처 : 동사 IR 자료(2021년 6월)

■ 기업부설연구소 중심의 R&D 역량 강화

동사는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최초인정일 : 2004년 7월 20일, 인정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설립하여 현재 상용화된 제품의 품질 개선과 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Imprinting 기술과 Optical Design 설계 기술, Polymer Formulation 기술, 다양한 정밀 Coating 기술 등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 원동력인 LCD 부품 소재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응용하여 재귀반사시트, 윈도우 필름 등의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글로벌 부품소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기술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사는 사업 초기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는데, 동사의 최근 3년(2018~2020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평균은 1.93% 수준으로, 기초 기술 개발, 개량 기술 개발의 성과를 통해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표 1] 연구개발비용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연구개발비용 총계	5,906	7,223	4,824	896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 매출액 X 100]	2.12%	2.47%	1.20%	0.76%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2] 지식재산권 현황 (단위 : 건)

출원인	종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기타	총계
미래나노텍	특허(출원)	110(34)	13	10	16	29	178(34)
	디자인	1	-	-	-	-	1
	상표	23	-	-	2	1	26
총계		134(34)	13	10	18	30	205(34)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특허청,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3] 최근 연구 개발 실적

연구과제	기대효과
(21년 해외향) 반사편광 응용 복합시트 개발	2021년 신규 모델 고휘도/고차폐 반사편광복합 시트 개발로 해외시장 확대
Accessory 用 고사양 Privacy Film 개발	투과율 및 시야각 향상된 제품 개발 및 양산화로 매출 확대 기대
베리어 내재화 개발	베리어 필름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 기대
19년 UTQ Sheet 개발	반치폭 개선 QD 적용 색재현율 향상/QD Resin 사용량을 줄인 얇가 Sheet 개발로 매출 확대 기대
QLC-C, QLC-D Sheet 개발	QLED TV 색 시야각 및 Black 특성 개선용 시트로 매출 확대 기여
확산판 일체형 시트개발(D/P-LESS)	D/P+복합시트를 결합한 고차폐 복합시트/D/P의 확산 및 차폐 광효율을 복합시트에 결합한 신규시트 개발로 시장확대 추진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3월)

## II. 재무분석

###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호황에 따른 매출 상승 기대

동사는 IT용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으로 광학 필름, 터치 패널, 윈도우 필름, 재귀 반사 필름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제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최근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호황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 주력사업 호황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2020년 매출 증가

동사는 2002년 LCD BLU용 광학필름 상용화 이후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 및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터치패널, 윈도우필름, 재귀반사필름, 멀티코팅필름 등)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여 사업 영위중이다. 특히, 동사의 주력제품인 LCD용 디스플레이 광학필름은 시장점유율 약 22%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사 최근 3개년 매출실적은 2018년 2,797억 원, 2019년 2,930억 원, 2020년 4,036억 원으로, 디스플레이 광학필름과 관련한 시장 호황 및 시장점유율 확대, 자회사(금융업)의 양호한 성장에 따라 2020년 37.7%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이며 외형 성장하였고, 2021년 1분기 매출액 1,1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834억 원 대비 40.6%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이는 등 외형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4] 품목별 매출 실적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디스플레이	제품	광학필름	1,549	1,706	2,469	771
윈도우필름	제품	윈도우필름	143	174	232	81
재귀반사필름	제품	재귀반사필름	58	79	120	30
터치패널	제품	터치패널	124	81	60	13
멀티코팅필름	제품	멀티코팅필름	73	33	33	9
백색가전	제품	노이즈필터	830	820	865	261
금융업	투자수익	투자수익	16	33	250	5
	기 타		4	4	7	3
	<b>합 계</b>		<b>2,797</b>	<b>2,930</b>	<b>4,036</b>	<b>1,173</b>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제품별 매출실적을 보면, 주력제품인 광학필름의 경우 2020년 매출액 2,469억 원으로 2019년 대비 44.7%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였고, 윈도우필름 33.3%, 재귀반사필름 51.9%의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 재귀반사필름의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여 2020년 6월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20년 매출액 6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5.9% 감소한 터치 패널의 경우, 최근 백신 접종률 증가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로 인한 수요회복 등 2021년에도 동사의 외형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외형 성장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향상

최근 중국 저가시장의 강세 속에 LCD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경쟁 과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8년과 2019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각각 1.0%(2018년 1.3%), 0.6%(2018년 2.5%) 기록하는 등 낮은 수익구조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7.9%, 순이익률 5.2%를 기록,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매출증가세가 이어지며 2021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 6.3%, 순이익률 6.8%로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당사는 생산수율 제고, 외주임가공 내재화 및 생산속도 향상, 제품기술력 향상 등을 통해 수익개선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



\*출처 :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5] 주요 재무현황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매출액	2,797	2,930	4,036	834	1,173
영업이익	35	29	320	-9	73
당기순이익	69	17	210	-16	79
매출액증가율(%)	-0.3	4.7	37.7	20.0	40.6
영업이익률(%)	1.3	1.0	7.9	-1.1	6.3
순이익률(%)	2.5	0.6	5.2	-1.9	6.8
총자산	3,034	3,160	3,563	3,297	3,754
부채총계	1,403	1,415	1,519	1,530	1,590
자본총계	1,631	1,745	2,044	1,767	2,163
부채비율(%)	86.1	81.1	74.3	86.6	73.5
자기자본비율(%)	53.7	55.2	57.4	53.6	57.6
유동비율(%)	157.3	139.8	147.9	136.5	175.2

\*출처 :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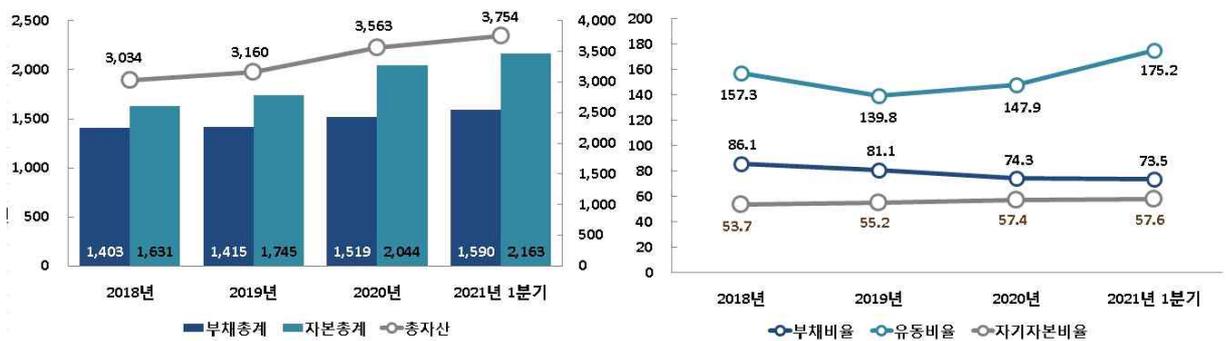
■ 이익 증가로 인한 양호한 재무구조 견지

동사는 2020년 유상증자 및 이익잉여금 증가로 인한 자본총계 증가로 2020년 결산기준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각각 74.3%, 28.1%로 전년도대비 감소하였으며, 유동비율 147.9%, 이자보상배수 13.6배로 재무구조 개선되었다.

한편, 매출 증가에 따른 자금 요소를 추가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나, 2021년 1분기 기준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잉여금 1,125억 원, 자기자본 2,163억 원으로 증가되어 부채비율 73.5%, 자기자본비율은 57.6%로 2020년 말 대비 개선되었다.

[그림 3]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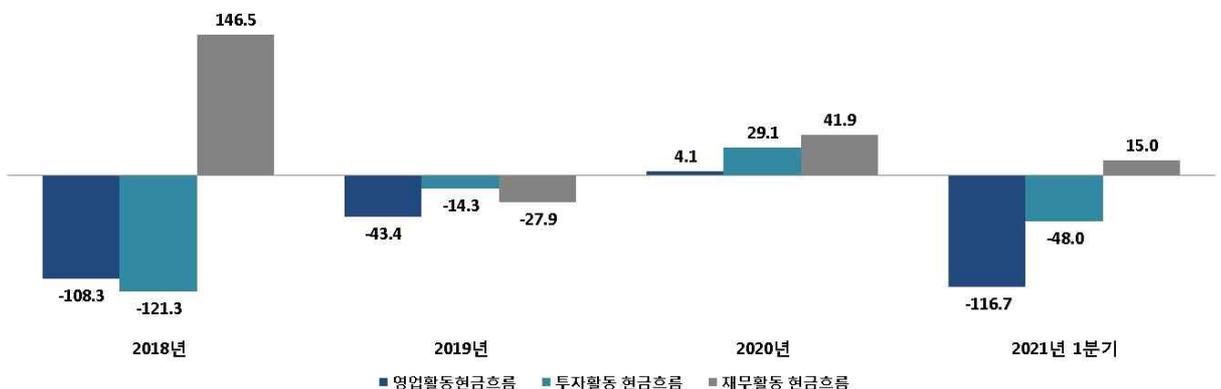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는 2018년과 2019년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의 상태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매출 증가 및 자회사 실적 호조에 힘입은 배당금수취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정(+)의 상태로 전환되었다. 또한, 투자활동 현금흐름도 2년 연속 부(-)의 상태를 보이다가 2020년 정(+)의 상태로 전환되었는바, 이는 2020년 중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과 금융자산의 처분금액이 취득금액을 상회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차입금의 증가 및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활동 현금흐름도 정(+)의 상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2020년에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모두 현금유입이 발생하여 기말 현금이 전기 대비 증가하였다.

다만,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장기차입금 증가로 재무활동에서 현금유입이 이루어졌으나,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 현금유출이 발생, 2020년 말 대비, 기말 현금은 감소하였다.

[그림 4] 현금흐름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 초미세 패턴 설계 및 코팅 기술의 확장성에 기반한 제품 다변화

동사는 최근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시장 호황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외에도 수익성 및 성장성이 높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여 다양한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 제품을 발굴하고 있다.

#### ■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시장 호황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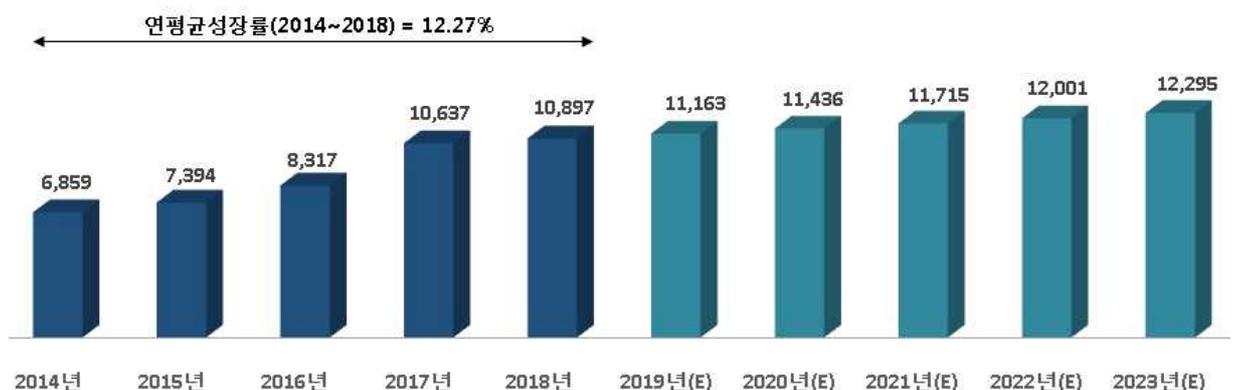
국내 BLU(Back Light Unit)용 광학 필름 산업은 LCD의 광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산재 산업이며, LCD TV 산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바,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다. 최근 TV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가 점차 대형화되고, 고화질, 고선명을 요구하는 시장의 니즈(Needs)로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BLU용 광학 필름 산업은 동사를 포함하여 신화인터텍, GLO, SKC, 상보, 에이스디지텍, 엘지화학, 엘엠에스, 코이즈 등 소재 부품 전문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LED BLU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BLU 디자인에 보다 많은 프리즘시트, 반사시트, 렌즈패턴 복합시트 등이 필요해짐에 따라, 필름 메이커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생기고 있다.

국내 BLU용 광학 필름 출하금액은 2014년 6,859억 원에서 2018년 10,897억 원으로 연평균 12.27%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이후 연평균 2.44% 증가하여 2023년에는 12,29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국내 BLU용 광학 필름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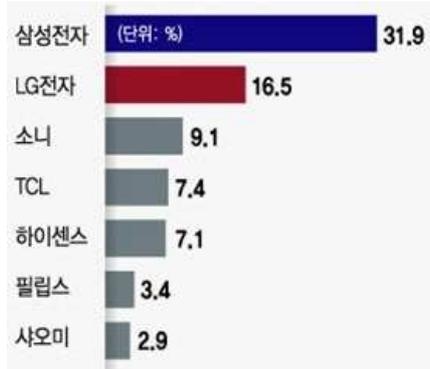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제조업 출하금액,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또한, 글로벌 TV 시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집콕’ 수요가 이어지며,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가 발표한 2021년 세계 TV 시장 전망치를 보면 전 세계 TV 판매 대수는 연간 2억 2,309만 3,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TV 제품들이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동사는 이러한 글로벌 TV 시장의 호조와 함께 주요 고객사들의 프리미엄 TV 모델의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매

출 비중이 27%에서 32%로 증가하였다. 동사는 현재 수익성 및 성장성이 높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여 기존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외에도 8K 디스플레이 소재 및 5G 통신 소재를 개발 중에 있어 향후 더 큰 성장과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그림 6]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2020년) 및 프리미엄 TV 출하량 (단위 :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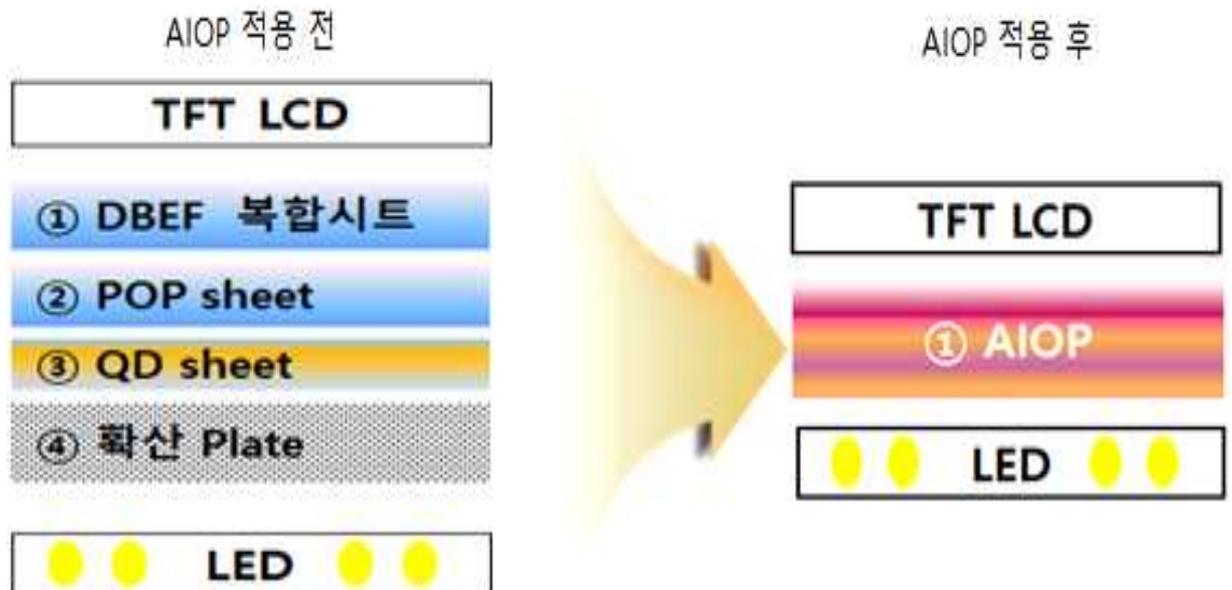


\*출처 : 음디아

### ■ 초슬림 인피니트 TV용 AIOP(All In One Plate) 상용화

AIOP는 동사가 TV 두께를 얇게 하고 베젤(Bezel)이 없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Sheet to Plate 정밀 합지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광학 부품 4장을 AIOP를 통해 1장으로 일체화한 제품이다. 동사는 이를 통해 광학부품 두께를 기존 대비 1/2로 축소하는데 기여했으며, TV 세트 조립공정 단순화 및 원가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현재 주요 고객사인 S사의 2020년 8K Q900T, Q950T TV 모델에 적용되었으며, 2021년 형 8K Q900A, Q950A TV 신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동사는 AIOP를 통해 국내 광학필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모델 채택을 위해 개선 제품 등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그림 7] 동사의 AIOP 제품



\*출처 : 동사 회사소개서

### ■ 자동차 번호판용 반사 필름 국산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2019년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 8자리 반사 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반사 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 다시 광원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 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되는 재귀반사필름은 동사(계열사 미래나노텍글로벌)를 포함, 총 3개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전기차 번호판용 반사 필름의 경우 2017년부터 도입되었는데, 미국 3M에서 수입된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되었으나, 동사가 국산화한 자동차 번호판용 반사 필름으로, 가격을 현실화해 그동안 수입산 반사필름에 의존했던 자동차 번호판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자외선과 매연 등의 가혹한 도로 환경에 강한 고내후성 필름을 사용한 제품으로 국토교통부 기준의 엄격한 성능규격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며, 전국 220여개 번호판 제작사에 공급 중에 있다.

[그림 8] 동사가 국산화한 자동차 반사필름



미래나노텍글로벌 자동차 번호판용 반사필름



미래나노텍글로벌 전기차 번호판용 반사필름

\*출처 : 미래나노텍글로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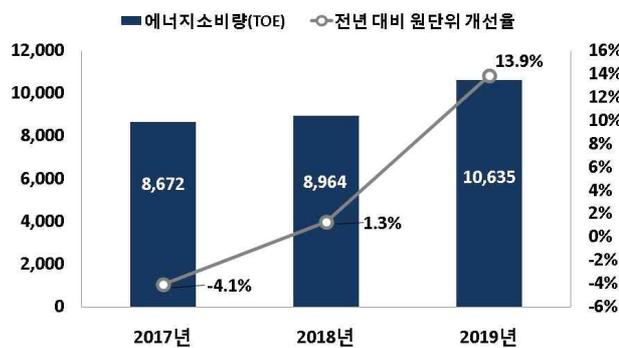
###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기반 환경경영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침 및 목표 수립, 모니터링 실시, 환경 및 안전, 보건을 핵심 주제로 하여 오염방지, 자원이용, 안전보건, 작업환경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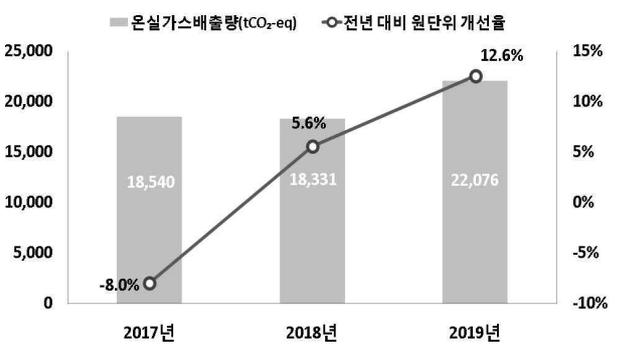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사용이 제한되는 법정 규제물질과 자발적 제한물질을 엄격하게 관리·검사하고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전 과정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은 석유가 대부분이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동사의 에너지사용량은 10,635TOE, 온실가스배출량은 22,076tCO<sub>2</sub>-eq, 용수사용량은 83,183ton으로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생산실적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수치로, 전년 대비 원단위 개선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총량은 4.064ton, 수질오염물질총량은 0.071ton, 폐기물발생총량은 2,492ton으로 폐기물발생총량을 제외한 모든 수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9] 에너지소비량



[그림 10] 온실가스배출량



\*출처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동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레진 사용량을 줄인 염가 시트(utq 시트)를 개발하여 제품 단가와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농도(약 70ppm → 25ppm) 및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축열연소장치, 여과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과 폐수 저장조,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인재, 존중, 상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재 육성 지원, IT 교육지원캠페인 참여, 사회적 협약체결,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단체헌혈, 기부와 나눔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공동체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미래꿈나무 장학사업,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내 사회적기업과 결연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잠재적 위험요인(감전, 화재, 추락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장 설계, 작업 수행 절차 수립, 개인 보호 장비 제공과 더불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예방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진, 화재 및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조치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외부 유출 초기진압, 화재발생에 따른 초기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처리 후 후송, 유관기관 및 인접회사, 인근주민의 상황전파 체계 등을 확립하고 있다.

지배구조(G)의 경우, 정보공개와 주주 권익보호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로서의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최신자료와 회사소개 영상 등을 게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일정 수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